

기자회견 중 고양이 변신 화제

파키스탄의 한 정치인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식 기자회견을 하던 중 '귀여운 고양이' 모습으로 변신해 화제가 됐다.

라이브방송을 연결하던 직원 실수로 고양이 필터가 적용된 것이다.

파키스탄 북서부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정보부 장관인 사우카트 알리 유사프자이가 '고양이 변신 사고'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AFP통신과 현지 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사프자이는 집권당인테흐리크-에-인사프(PTI) 소속 유력정치인 중 한 명으로,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지방정부가 내린 결정 사항들에 대해 진지하게 브리핑했다. 하지만, 갑자기 라이브방송 화면에 고양이 필터가 적용되면서 유사프자이 장관의 머리에는 분홍색 귀가, 볼에는 고양이 수염이 달린 모습이 생방송 됐다. /연합뉴스

경찰관이 '돈 맡아주겠다' 사기 떨기

일본에서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으려 출동한 경찰관이 돈을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속여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교토부 경찰은 전날 야마시나경찰서에 근무 중인 순사장(한국의 경장급) A(38)씨를 시민에게 돈을 맡아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혐의(사기)로 체포했다.

A씨는 작년 11월 교토시내의 한 금융기관에서 남성 B(78)씨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A씨에게 B씨는 자신의 집에도 돈이 많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A씨는 은행 말고도 파출소에서 돈을 맡아준다고 속여 1,180만엔(약 1억2,9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그래픽 뉴스



홍콩 '송환법' 2003년 국가보안법 전철 밟나

'50만 시위' 두 달 만에 국가보안법 철회 백기 정부 '철회' 아니라지만 실상 '소멸의 길' 예측

홍콩 정부가 100만 홍콩 시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의 연기 방침을 밝혔지만, 결국에는 2003년 국가보안법의 전철을 밟아 '자연사'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03년 통치와 당시 홍콩 행정 장관은 홍콩 헌법인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

협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통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 제정을 자신했지만, 2003년 7월 1일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도심으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면서 사태는 급반전했다.

50만 시위에도 통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 강행 의사를 밝혔지만,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이 7월 9일 입법회를 포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하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통 전 장관은 예고된 입법회 포위 시위가 벌어지기 직전인 7월 7일 성명을 내고 "대중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재검토하겠다"며 국가보안법 2차 심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5일에는 국가보안법 초안 자체를 철회했다.

이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라는 중국 중앙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캐리 램 행정장관이 밀어붙인 송환법도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비슷한 전철

을 밟고 있다.

지난해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살인범의 대만 인도를 위해 범죄인 인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홍콩 정부는 지난 2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범민주 진영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범죄인 인도'를 빌미 삼은 국가보안법의 재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급기야 지난 9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의 홍콩 시민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어 12일에는 입법회를 둘러싸고 수만 명이 법안 2차 심의 저지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수십 명이 부상했다.

홍콩 정부는 12일 이후에도 송환법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지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국 캐리 램 장관이 전날 "법안 추진을 연기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리 램 장관은 '법안 철회'는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홍콩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소멸'의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 입법회 의원의 임기가 내년 7월 끝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법안이 재추진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연스럽게 소멸한다. /연합뉴스

"日정부, 이란 유조선 공격 못믿어"

교도통신 보도...美·日 시각차 드러내

일본 정부가 자국 관련 유조선 2척을 공격한 주체가 이란이라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북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란이 공격했다는 미국의 설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오만해 인근에서는 일본 해운회사가 빌려 운영 중인 고쿠카 커리어저스호(파나마 선적)를 비

롯해 유조선 2척이 피격당했다. 미국은 '고도의 기술과 정밀도를 갖춘 공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조선 공격과 관련해 '이란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한 이후 북수의 외교 루트를 통해 미국에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일본은 이란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미국 측

에 일본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란 의사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4일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할 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공격 주체를 특정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미국의 설명대로라면 '이란 관여설'은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일본 정부 고관의 말을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자세는 공격의 주체가 이란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를 설득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연합뉴스

페플라스틱 감축 행동계획 작성 합의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 참가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각국이 행동계획을 작성해 이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저이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참가자들은 전날 열린 첫날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각자 페플라스틱 배출량 축소를 위한 행동 계획

을 만든 뒤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의 국제적인 규칙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니혼게이저이에 따르면 페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국제적인 규칙 만들기가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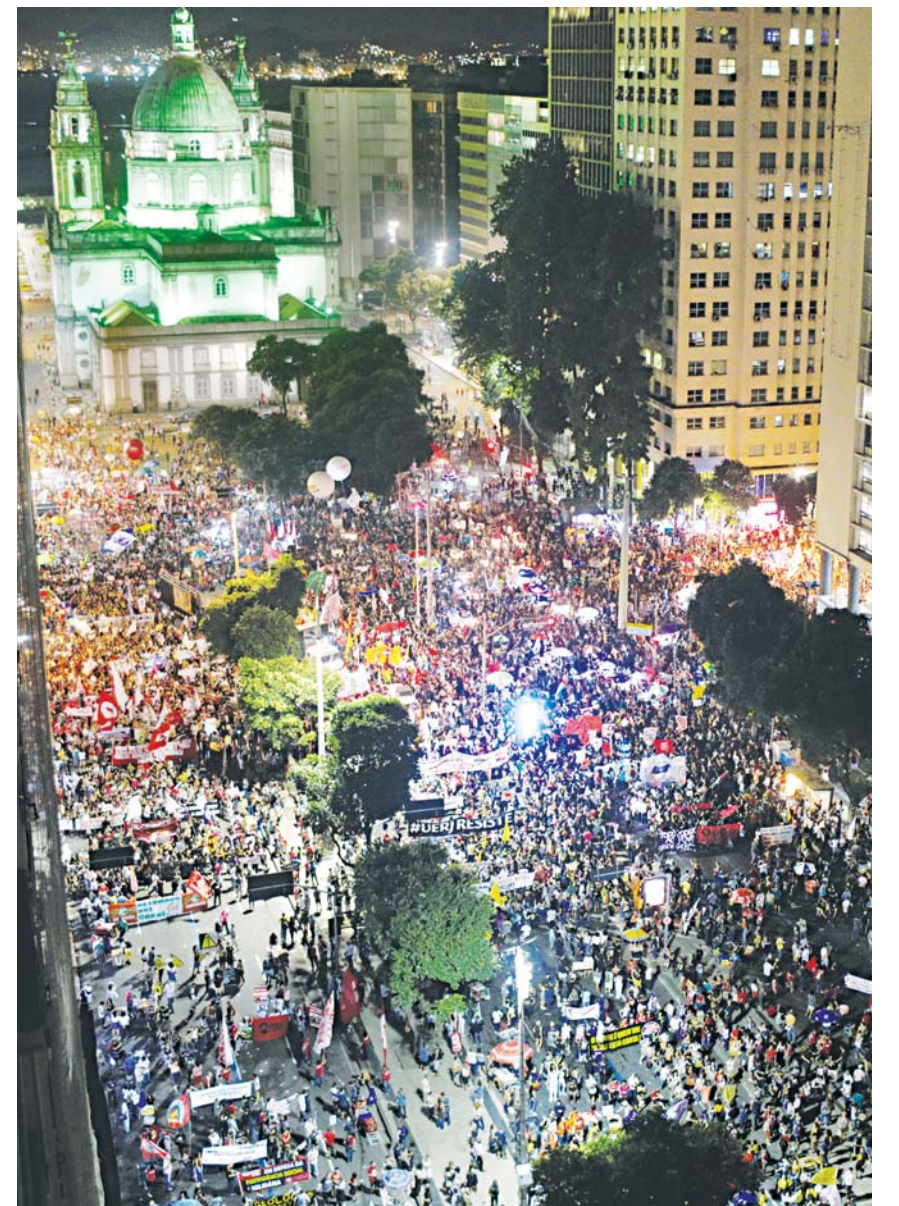
다만 이런 식의 국제 규칙은 온난화 대책을 담은 파리 협정 등과 달리 구속력은 없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런 국제 규칙 만들기는 의장국인 일본이 제안한 것으로, 이날 회의 폐막과 함께 발표되는 공동성명에 포함될 전망이다. 회의에서 일본측은 페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오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각국이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보고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다로 흘러나오는 페플라스틱은 부유되면서 자외선에 의해 분해돼 크기 5mm 이하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된다. 이 마이크로플라스틱은 유해물질을 쉽게 흡착하는 성질을 가져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일본 관련 유조선 2척이 원유를 주요 보급 루트 중 하나인 오만해 인근에서 피격당한 직후 열려 에너지 안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졌다. /연합뉴스



브라질 연금개혁 반대 총파업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4일(현지시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다. 대형 노동단체들이 주도한 이날 총파업 시위는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열렸으며 대중교통 부분 마비와 각급 학교 임시 휴업 등의 사태가 빚어졌다. /연합뉴스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속모델
강석우 내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 신제품 출시 ★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간경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능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두뇌 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살해 결정과정, 올리고당

국산 검은콩 함유

Vegemil 베지밀

항아리고 건강함 5060 시니어두유

Soy Milk for Senior Citizens

두유액 90g 단백질 7% 이상 180ml (120kcal)

1 주문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포 트러스트 www.ecdaymall.com | 문의 | 고객센터 080-8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 경기: 동부영양소 (02)552-4807 ● 부산영양소 (02)999-3382 ● 남부영양소 (02)981-8335 ● 강원영양소 (02)920-8929 ● 제주영양소 (02)925-7229 ● 강원영양소 (02)374-8911 ● 충청영양소 (042)823-8801 ● 전북영양소 (063)246-5731 ● 전남영양소 (062)941-5011 ● 경북영양소 (053)859-3444 ● 경남영양소 (053)221-8568 ● 광주영양소 (054)504-8333 ● 울산영양소 (052)204-8584